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85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19)부대·부소오름

한겨울에도 푸르른 부대·부소오름

입력 : 2004. 02.27. 00:00:00



설연휴 기간 뒤 처음 이뤄진 주말산행이다. 지난달 31일 한라대맥 탐사단은 부대·부소오름을 찾았다. 중산간 들녘은 여전히 많은 눈이 쌓인채 탐사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내내 칼바람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날은 바람이 잦아든 대신 눈과의 한판 전쟁을 벌여야 했다.

△부대오름

발목까지 잠기는 눈으로 평소보다 몇배는 힘든 산행길이다. 그래도 오름을 오르는 탐사단의 발걸음은 가볍다. 20여년만에 많이 왔다는 이번 눈은 폭설이라기 보다는 서설(瑞雪)이라는 표현이 알맞을 듯 하다.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부대오름은 표고 420m의 전형적인 말굽형 분화구가 특징이다. 한자 표기로 부대(富大·浮大·夫大·扶大)오름은 다양하게 불리지만 그 뜻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신영대 탐사위원은 부대오름에 대해 "밖에서 보는 가마솥의 형상과 안에서 보는 큰 부대(浮袋)의 모양을 합쳐 부대악(釜袋岳)이나, 또는 재물과 관계된 부봉안(富峰案)에 속한다는 점에서 부를 크게 일으켜 주는 부대악(富大岳)이라는 이름도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미있게 풀이했다.

부대오름에서 탐사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발하는 난대림 숲지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분화구 안쪽 사면은 녹나무 동백나무 등이 균락을 이룬 가운데 늘푸른 식생의 난대림 숲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겨울철에도 푸른 숲을 이르는 곳은 도내 368개 오름중 체오름 서검은오름 등 3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의 식생은 특이하다고나 할까.

또 하나 시선을 모은 것은 동쪽을 향해 널찍하게 활짝 열린 U자형 분화구다. 눈짐작만으로도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조천목장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제 당시 일본군의 진지로 이용됐던 곳이기도 하다. 일제는 부대오름의 북쪽과 남쪽 사면에 5개 이상의 진지동굴을 구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도 진지동굴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동부지역 오름에 소재한 진지동굴이 주로 해안선이 무너질 경우 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인 점에 비춰볼 때 이곳 역시 주저항진지 역할을 위해 구축됐을 것으로 보인다.

△부소오름

부소오름은 조천읍과 구좌읍의 동쪽 경계를 이룬다. 표고 469m로 한자로는 부소(夫小·扶小) 등으로, 또는 사모악(紗帽岳) 신두악(新斗岳)으로 알려져 왔다. 부대오름과는 바로 이웃해 있다.

탐사단은 부소오름에서도 뜻밖의 식생을 마주했다. 오름 사면에는 때죽나무 서어나무 등 해발 700고지나 가야 볼 수 있는 낙엽활엽수림지대가 뺨뺨이 형성돼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곳의 낙엽활엽수림지대는 원식생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사례로 주목된다. 고정군 탐사위원은 “부소오름의 낙엽활엽수림대는 60년 이상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때문에 식생형성이 가능했고 양호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은 능선을 따라 조림한 해송이 낙엽활엽수림지대를 단절시켜 놓고 있는 등 식생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는 천미천의 흐름으로 인한 침식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부소오름의 남서쪽 사면은 깎아지른 절벽처럼 패여 나가는 등 지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구간은 마치 단애처럼 형성돼 있어서 검붉은 송이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가 하면 급류에 휩쓸린 나무들이 뿌리째 뽑힌 채 물길을 가로막고 있다.

부대·부소오름은 화산·지형학적으로 정반대의 분화구를 하고 있어 묘한 대비효과를 연출한다. 부대오름의 분화구가 동북쪽으로 활짝 열려 있는 반면 부소오름은 남서쪽 방향으로 트여 있다. 지척의 두 오름의 분화구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오름 지형·지질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만큼 많은 연구과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특별취재팀

[전문가리포트]부소오름, 낙엽활엽수림 발달

부대오름과 부소오름에는 일부의 조림지역을 제외하고 낙엽활엽수로 이루어진 자연림이 분포하고 있다. 이중 부대오름에는 동백나무, 녹나무 및 생달나무 등으로 구성된 상록활엽수림이 일부 지역에 한하여 분포하지만, 때죽나무와 예덕나무를 주요 수종(樹種)으로 하는 낙엽활엽수림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소오름의 서북사면 해발 340~460m 사이에는 서어나무, 때죽나무를 비롯하여 산딸나무, 당단풍, 벚나무류 등이 혼효된 형태의 낙엽활엽수림이 발달되어 있다. 부소오름의 낙엽활엽수림은 보전상태도 매우 양호하며, 나무의 키나 둘레 등의 크기를 고려할 때 60년 이상 동안 인위적인 간섭 없이 형성된 자연림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온대림이라 부르는 낙엽활엽수림은 제주도와 남해안의 일부 지역과 함경북도 등 북부의 산지, 그리고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임상(林相)이다. 또한 제주도내 낙엽활엽수림도 대체로 한라산 해발 600~1,400m 사이에 주로 분포하며, 그 면적도 다른 임상에 비해 매우 넓다. 이들 숲에는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서어나무, 물참나무, 당단풍, 가막살나무, 제주조릿대 등이 주요 수종을 이루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서어나무류나 참나무류가 과거 표고재배를 위한 자목 등으로 이용되어왔기 때문에 원생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고 2차림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부소오름의 낙엽활엽수림이 희소적인 가치는 낮은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내 중산간 이하 오름의 산림이 대부분 삼나무, 측백나무, 해송 등으로 인공 조림된 숲을 이루는 것과 크게 차별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생물의 다양성 유지 등 숲이 주는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고려할 때 부소오름의 낙엽활엽수림은 제주도내 오름의 숲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고정균 탐사위원 이학박사·한라산연구소/식물생태생리 분야)

[전문가리포트]부소의 둥근 이마엔 高山穴이...

부대오름은 풍수의 지리법에서 말하는五星(오성)의 분류로 전형적인 금형(金形)이다. 마치 쇠북(鍾)을 엮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원만하여 가마솥(釜)의 형상이기도 하다. 굽부리를 이룬 안쪽을 상기하면 큰 부대(浮袋)의 모습과 흡사하여 밖에서 보는 가마솥의 형상과 안에서 보는 부대의 모양을 합쳐 부대악(釜袋岳)이라 함이 옳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부대오름은 안산(案山)으로서 제격이며 재물과 관계된 부봉안(富峰案)에 속하니 부(富)를 크게 일으켜 주는 부대악(富大岳)이란 지명도 일리가 있다. 둥글게 좌우로 휘감아 마치 집게 모양으로 굽부리가 동북방으로 터져 강한 기운을 흡입하는 느낌을 준다. 풍수학적으로 종을 땅에 엮어놓은 형상인 금종복지형(金鐘伏地形)에 가깝다.

서남쪽으로 개구된 부소오름도 부대오름과 비슷한 금형(金形)이다. 오름의 정상부 바로 아래 자리한 서남쪽 사면에 고산혈(高山穴), 즉 천교혈(天巧穴)이 자리한다. 천교혈은 맑고 청명한 산의 이마에 맺혀서 높은 곳에 있어도 전혀 높은 곳인 줄 모르고 마치 평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서남쪽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안산과 조산들이 한 눈에 들어오고 가까이로 '까끄래기' 오름이 안산으로 자리하며 바로 앞으로 영험한 천미천의 물줄기가 횡수국(橫水局)을 이루며 휘감고 나간다. 좌우로 청룡과 백호가 가지런하게 양어깨를 균등하게 하여 감싸주고 능히 바람을 감추니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바로 뒤로 낙산(樂山)이 등을 바치고 입수(入首)에 상서로운 암석들이 기운의 줄기를 분명히 한다.

부대오름과 부소오름에 관한 지명은 한자명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아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중요한 것은 지명 속에는 예로부터 선조들이 살아온 지혜와 숨결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 설화나 민담 등 문화적 맥락에서 종합적인 지명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부대·부소의 이름을 떠 올리며 왜 오름의 생명력과 원망성(遠望性)의 아름다움을 제주의 영원한 상품성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학교수/풍수지리분야))

영상취재 : (주)디지털라인

후원 : 한국언론재단

[사진설명]서검은오름에서 바라본 부대오름. 동쪽으로 활짝 열린 U자형 분화구에는 때죽나무, 예덕나무를 주요 수종으로 하는 낙엽활엽수림이 넓게 발달돼 있고 외사면 일부지역에는 상록 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알림]2월 28일(토요일)은 절물오름·견월악 등을 탐사합니다. 탐사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오전 9시까지 본사 휴게실로 나오시면 됩니다. 참가비 1만원.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